

실로암 한인침례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March 22, 2026, 10:30 a.m.

사순절 다섯번째 주일 (Year A)

Fifth Sunday in Lent (Year A)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78@gmail.com

www.siloamk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예배 순서 WORSHIP ORDER

예배 인도자 Presider 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 인도자 Presider

예배 기도 Invocation..... 인도자 Presider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C1162 약한 나로 강하게 What the Lord Has Done in Me

C1030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Days of Elijah

C1004 항상 진실케 Change My Heart O God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th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뒤돌아보기 Time to Reflect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다같이 All Together

요한복음 John 11:1-45

설교 Serm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다 Jesus Revives Lazarus

III 화답 Response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620 여기에 모인 우리 We Will Keep Our Faith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 장선욱 목사 부부는 3월 24일부터 4월 8일까지 한국 방문합니다.
 - 그동안 주일 예배는 가정에서 모이겠습니다.
 - 수요일 zoom 을 통한 성경 공부는 봄 방학입니다.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사도행전 2장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입니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 자녀들을 위하여
- 여행하는 분들을 위하여
- 권세자들을 위하여

THE FIRST LESSON 에스겔 EZEKIEL 37:1-14

- 1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 2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히 많고 아주 말랐더라
- 3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 4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 5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 6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 7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 8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 9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 10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 11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 12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 13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 14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편 PSALM 130

- 1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 2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 3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 4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 5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 6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 7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8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THE SECOND LESSON 로마서 ROMANS 8:6-11

6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7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8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11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서신서 성경 공부

본문 함께 살펴보기

본문인 로마서 8 장 6-11 절은 바울 신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바울은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을 대조하며, 그리스도인의 실존이 어디에 뿌리를 두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6 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선포하며, 단순한 도덕적 선택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영적 상태를 강조합니다. 이는 당시 로마 교회 성장통을 겪던 신자들에게 육적 본능이 아닌 성령의 통치 아래 거할 것을 권면하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육신에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명시합니다(8 절). 이는 인간의 자력 구원이 불가능함을 시사하며, 오직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인도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이라는 조건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외부의 율법 준수가 아닌, 내주하시는 성령의 현존에 달려 있음을 확증합니다.

마지막으로, 11 절은 종말론적 희망의 절정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는 미래의 부활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죄로 인해 죽어가는 부분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력을 얻게 됨을 의미합니다. 성령은 단순히 위로자가 아니라,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재창조의 영이십니다.

말씀 속에 담긴 믿음의 주제들

첫 번째 주제는 '**'생명과 평안의 근원'**입니다. 바울은 마음의 지향점이 곧 삶의 열매를 결정한다고 가르칩니다. 성령을 따르는 생각은 단순히 긍정적인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상태를 뜻합니다. 이러한 영적 상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내면의 '에이레네(평강)'와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줍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령의 내주하심과 소유권'**입니다. 9 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좋은 교훈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존재 안에 '거처'를 정하신 사람입니다. 이는 우리의 주권이 더 이상 육신(자아)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의미하는 소유권의 이전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부활의 현재적 능력'**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과 신자의 삶을 성령을 통해 연결합니다. 예수를 살리신 성령의 에너지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죄의 습관과 죽음의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있음을 보증합니다. 부활은 먼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는 현재 진행형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돌아보기

오늘날 우리는 끊임없이 '육신의 생각'을 자극하는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성공, 소유, 경쟁과 같은 가치들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과 원수 되게 만들며 결국 영적인 고갈과 사망의 골짜기로 인도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듯 우리의 생각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오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으로 인한 불안 속에 있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결코 혼자서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고난이나 질병, 혹은 심각한 영적 침체 속에서도 우리 안에는 '살리는 영'이 계십니다. 나의 연약함에 집중하기보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현존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육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내 안의 성령께서 나를 통제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부활 신앙은 우리에게 '소망의 책임'을 부여합니다. 죽을 몸을 살리시는 성령을 신뢰한다면,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언어를 선택해야 합니다. 무너진 관계, 상처받은 마음, 무기력한 일상 속에 성령의 생기를 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이 나의 평범한 일상을 비범한 은혜의 현장으로 바꿀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함께 나누기 위한 질문들

1. 당신의 마음을 가장 자주 차지하는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당신의 평안을 어떻게 방해하나요?

2.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일상에서 실질적으로 느껴본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3. 현재 당신의 삶에서 '죽어가는 부분(낙심, 포기, 죄책감 등)'에 성령의 부활 능력이 임한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실천을 위한 실행 계획

Day 1 (침묵): 아침에 일어나 5 분간 "성령님, 내 안에 거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침묵하기.

Day 2 (분별): 육신의 생각(불평, 시기, 분노)이 들 때마다 즉시 멈추고 "이것은 사망의 생각입니다"라고 선포하기.

Day 3 (선포): 로마서 8 장 11 절 말씀을 3 번 크게 낭독하고 나의 건강과 상황 위에 축복하기.

Day 4 (평안):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생명과 평안'의 말을 한 마디씩 전하기.

Day 5 (동행): 잠들기 전, 오늘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한 문장으로 기록하기.

마무리 묵상과 공동의 기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11)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육신의 욕망에 머물지 않고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몸의 연약함과 영혼의 낙심을 아시는 주님, 예수를 살리신 그 부활의 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GOSPEL 요한복음 JOHN 11:1-45

- 17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 지 이미 나흘이라
- 18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 리쯤 되매
- 19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 20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 21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 22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 24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 2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 26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 27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 28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 29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 30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 31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 32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옵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 33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 34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 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